

## 통일 대박을 준비하려면

KISTI 원장 한선화

우선, 과학기술은 비정치적이라는 환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협력 과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은 모든 일상이 정치적이 아닌 것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협력은 외화벌이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협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다자간 협력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포스코가 다음 달 북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통일경제의 토대를 쌓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북간 사업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지만 다자협력 사업으로 가져간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우방인 러시아, 중국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 협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장은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먼 훗날을 바라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실제로 포스코가 11월 나진항을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석탄은 3만5,000톤으로 연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의 2%에 불과한 양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경로를 나진항으로 이동할 경우 물류비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 등 내륙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드레스덴 선언’으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은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독일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DMZ 평화공원에 남북 과기협력센터 설립, 남북 과학기술 협력 과제 중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사람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과학기술 용어 협력 사

업을 시동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의 특성상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이고 토론하는 장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추후 분야별 구체적 협력 사업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1994년 시작되어 1999년 출판된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과 이의 증보개정판인 조영한중일 정보기술 표준용어사전 (2002년 출판)은 이를 시도한 좋은 예이다. 당시에는 남북이 직접 접촉할 통로가 없어 중국을 경유 하였으나, 남북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공간이 생기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그림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을 통독 직전까지 지속하였고, 중국-대만도 중국사전협회와 대만중화문화총회가 중국어 사전 공동 편찬을 추진하여 중국 대만 학자 200여 명이 15개월만에 2012년 8월 ‘양안 상용사전’ 발간하였다.

남한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일방향적으로 ‘도와준다’는 접근은 북측의 자존심을 건드려 오히려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북에서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거나,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간 IT 협력은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 단둥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하나 소프트웨어 센터, 삼성이 북경에 설치한 SW 개발 센터 등의 경험을 살려 평화공원 내 남북 IT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IT협력센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는 연구 공간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은 협력 부문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협력을 할 수 있는 상대편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국가과학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대백과사전(1996)에 따르면 ‘국가과학원’의 역할은 “나라의 과학발전을 책임진 국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과학핵심력량과 인재육성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과학자대렬을 늘려나가는 사업을 전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는 모두 224개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과학원에 104개, 농업성 산하에 있는 농업과학원에 21개, 보건성 산하에 있는 의학 과학원에 26개, 그리고 기타 연구소가 73개 있다. 국방관련 기관들은 제2 경제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제2자연과학원’에도 30여 개의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부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각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어떤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협력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과학기술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KISTI에서 과기부와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서비스하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는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과학원통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등 17종의 과학기술분야 정기간행물 (1991-2007년까지, 원문 확보), 북한의 발명권제도에 의한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정보 (1991 - 2009년, 원문 비소장), 북한자료원전목록들과 북한의 '조선출판물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한 단행본 목록 (일부 원문 소장), 북한의 '규격제정연구소'에서 발행한 산업규격인 국규(KPS) 정보(광업, 농업, 금속, 기계, 건설, 화학, 기기 등 전 분야를 포함, 원문 소장), 북한에서 개발한 SW 목록(182건), 기술법령(72건) 등을 소장 서비스 중이다. 현재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북한 학술지를 추가로 도입 중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포인트를 찾기 위해 이 서비스 역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